경제혁신 3개년 계획 "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"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12.3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배포즉시 보도가능)

배포일시	2016. 12. 2. (금)	담당부서	동북아통상과
담당과장	조수정 과장(044-203-5690)	담 당 자	윤진영 서기관(044-203-5691)

산업부,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 개최

-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입규제, 비관세장벽,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등 점검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**는 **12. 2. (금) 우태희 2차관 주재**로,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양자·다자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의,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중국과 협의해온 대중(對中) **통상현안 및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점검**하기 위한 **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를 했다.**

○ 그 동안 정부는 비관세장벽협의회 및 수입규제협의회* 등을 통해 지속 검토해왔으며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점검했다.

* 비관세장벽협의회('13.11-) 및 수입규제협의회('16.9-) : 산업부 통상차관보(주재) 및 관계부처 국장, 업종별 협·단체, 경제단체 및 코트라(KOTRA)·무역협회 등 참여하에 대한(對韓) 보호무역 관련 최신동향 논의 및 민·관 합동 대응전략 수립 (분기별 개최)

<관계부처 합동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 개요>

○ **일시·장소** : '16. 12. 2. (금), 14:00, 정부서울청사 별관
○ **참석부처** : 산업통상자원부, 기획재정부, 외교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, 식품의약품안전처
○ **주요안건** : ① 중국의 한국산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, ② 중국 비관세장벽 ③ 중국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

□ 정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중국의 **수입규제, 비관세장벽, 현지 투자 우리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** 등에 대한 관련 현황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**대응 방안을 논의**했다.

○ **수입규제 조치와 관련**, 최근 중국 상무부의 **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(POM)에 대한 반덤핑 조사** 개시와, **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심조사** 개시 등에 대한 우리 업계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고,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중국 당국에 **공정한 조사를 지속 촉구**하기로 했다.

* 폴리옥시메틸렌(POM) 및 플리실리콘 조사 관련 산업부 차관보 명의 서한(11.16),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명의 서한(11.11, 11.23), 산업부 2차관-주한중국대사 면담(11.25) 등을 통해 제기

○ **비관세조치와 관련, 화장품 통관, 농식품 검역** 등 문제와 **관광·문화·콘텐츠 분야 현안을 점검**하여,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, 세계무역기구(WTO) 등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**적극 대응**하기로 했다.

* 산업부 통상협력국장-주한중국대사관 경제공사 면담(11.11) 등을 통해 제기, 재중 무역투자 유관기관(코트라, 무역협회, 중국한국상회 등)회의 등을 통해 정례(주1회) 점검

○ **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와 관련,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조치** 및 현지 우리기업에 대한 **소방 · 위생 점검, 세무조사 등 현황에 대해서 점검**하고, 관련 국제 통상 및 투자 규범에 따라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 대응하기로 했다.

* 산업부 장관 명의 中공신부장 · 상무부장앞 서한(10.17, 11.28), 산업부 차관-주한중국대사 면담(11.25) 등을 통해 제기

□ **각 참석 부처는** 최근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**다양한 형태의 규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**하는 한편,

○ 한중간의 경제·통상·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**한중 통상관계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특별팀(태스크포스)를 구성해 정례 개최**하기로 했다.

○ 통상추진위원회 내에 산업부 통상차관보 및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**"한중 통상 점검 틀별팀(TF)"**을 설치하고, 필요시 업종별 단체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기로 했다. (월별 개최, 필요시 수시개최)

□ **우태희 차관**은 "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중국의 자국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**중국의 규제 관련 동향을 더욱 면밀히 살필 필요**가 있다."라고 말하고,

○ **공관 및 무역관**을 통한 **수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**하고, **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정례화**하여 중국측 조치에 대해 **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**해 나가되,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및 세계무역기구(WTO) 등 관련 규범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.

□ 정부는 앞으로 **중국의 통상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**하고, **민관공동대응**을 통해 **중국과의 협력을 지속**하기로 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윤진영 서기관(☎044-203-569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